

[Korea IT Times] 여성의 날: MAILab, 서울아산병원과 유방암 AI 진단 모델 공동 개발

Source: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68>

- 연철웅
- 승인 2025.03.08 10:43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해 개발되는 의료 AI



(왼쪽부터)김학희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장연진 메일랩 CMO,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양동하 메일랩 부사장.

3 월 8 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을 위한 AI 기술 개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업 MAILab(메일랩)은 2024 년부터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협력해 유방암 진단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 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은 치밀 유방(dense breast tissue)의 비율이 높아 기존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ILab 은 4D MRI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아시아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유방암 예측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여성 건강을 위한 AI 모델이 여성 전문가들의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MAILab 의 Chief Medical Officer(CMO) 장연진 박사와 서울아산병원 영상학과 김학희 교수를 비롯한 여성 의료 및 AI 전문가들이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MAILab 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 슈퍼컴퓨터는 2 petaFLOPS(페타플롭스)의 연산 성능을 갖추고 있어 방대한 영상 의료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 유방암 AI 모델들이 주로 서양 여성의 지방 유방 조직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이번 모델은 치밀 유방을 가진 아시아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세계 최초의 AI 진단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ILab 의 Chief Medical Officer 장연진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방암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크다”며, “MAILab 의 기술이 여성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